

보도분류	브리핑( ) 보도자료 제공( ✓ )
보도일시	<b>2021. 10. 28.(목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b>
작성과	영종청라계획과
담당	과장 강영훈, 청라계획팀장 김복수, 담당 최창권(032-453-7612)

## “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 본격화”

**LH, 미래에셋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...1조7천억 투입해 4차산업 등 비즈니스 거점으로 인천경제청에서 수립한 개발계획 등으로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적극 노력**

-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청라국제도시의 핵심 지역인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시행자인 LH(한국토지주택공사)가 지난해 11월 중순 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과 지난 26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. 컨소시엄은 미래에셋증권을 비롯 도담에스테르, EMP벨스타 등 9개사로 구성돼 있다.
- 협약의 골자는 △총 투자비의 5%(850억원) 이상을 납입자본금으로 출자하고 자본금의 30% 이상을 외국투자자가 현금출자 △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 본 사업을 수행할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△투자비의 5%인 협약 이행보증금을 징구하고 핵심업무시설인 B2블록의 공정률에 따라 금액 또는 보증서 반환 △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시설 착공 등이다.
- 사업협약 체결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총 사업비 1조7천억원을 투입, 청라 B1, B2, C1, M5 등 총 14만3,943㎡의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올해 말까지 체결하고 내년에 착공, 오는 2028년까지 청라국제업무단지를

인공지능(AI), 정보통신기술(ICT), 사물인터넷(IoT) 등 4차 산업과 금융을 포함한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.

- 인천경제청은 이번에 사업협약이 체결된 1차 분외에 나머지 B9, B10, C2, M6 등 총 면적 13만4,000m<sup>2</sup>을 개발하는 2차 공모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LH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1차 공모결과 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,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.
-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업무단지가 업무용지의 규모 과다로 인한 사업성 문제와 국제업무·금융 유치라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지난해 4월 4차 산업혁명과 금융을 포함한 중추적인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키 위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했다.
- 이어 LH가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후 인천경제청은 LH와의 사업계획안 협의 등을 통해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에 적극 노력해왔다.
-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“청라국제도시의 상징성을 갖고 있고 또 핵심지역인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이번 사업협약 체결로 본격화됐다”며 “앞으로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을 세심히 챙겨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